

# 설 선물, 신선식품보다 생필품 대세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 대목에 선물세트 판매 비중이 신선식품보다 생필품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계가 청탁금지법 제정 초기부터 줄기차게 제기했던 농축산물 소비 감소 우려가 이번 설 대목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농협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설 이전 유통성수기 대비 수급 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최근의 선물세트 소비 동향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설 선물 성수기인 지난 13~18일 6일간 설 특관 선물세트 판매동향을 조사한 결과 과일인 전년 설 대목 동기 대비 19%나 줄어든다는.

축산물 역시 12%가 감소해 이번

## 과일 전년대비 19% ↓... 식용유·삼푸 등은 증가

설 대목에 농축산물 소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반면 비교적 값이 저렴한 식용유 등의 식품은 8%가 증가했고, 치약이나 삼푸 등의 생필품은 14%나 늘어났다.

가격대로 봐도 5만원 이하 세트는 평균 4% 증가했으나 5만원 초과 세트는 평균 2% 감소해 청탁금지법 시행이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도 선물 홍보 책자의 메인을 기존 과일류 등 신선식품에서 치약이나 양말 등 저가의 생활용품으로 바꾸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명절 선물 판매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

과일 선물세트 역시 저가의 수입과일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산지와 도매시장에서도 고스란히 감지되고 있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에 따르면 평년 설 대비 선물세트 판매 비중이 절반 이하로 급감했고, 도매시장에서의 매기 역시 움츠러들며 최악의 설 한파가 농산물 시장에 불고 있다는 전언이 이어지고 있다.

송년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인은 "유통업체에서 5만원에 물건을 맞추려고 해 가격 지지가 되지 않고 있고,

매기도 설이 맞는지 모를 만큼 가라앉았다"며 "과일 소비의 가장 큰 대목인 설에 물량이 제대로 출하되지 못하면 상반기 내내 과일업계가 침체될 수 있고 만일 추석에도 설과 같은 집합을 받게 되면 올해를 넘어 장기적인 과일 시장 침체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농식품부가 1월 중순 현재 평년 대비 부류별 농축산물 물가 동향을 분석한 결과 과일류와 시설채소는 평년 대비 낮고, 작황이 좋지 못했던 노지월동채소와 시 발생 피해가 있는 축산물은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노지채소류도 전순 대비 5% 하락하는 등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판단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전주상공회의소는 설을 맞아 23일 전주 신중양시장 일원에서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이용촉진 캠페인'을 펼쳤다.

## 전주상의,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전개

전주상공회의소는 민족 최대명절 설을 맞아 23일 전주 신중양시장 일원에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의원 및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이용촉진 캠페인'을 실시했다.

전주상의는 매년 '계수용품 구입과 선물준비는 전통시장을 이용하자'는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도 역시 행사에 참여해 장보기를 한 물품 전부를 지역 복지시설에 기부하

며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설명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전주상공회의소 이선홍 회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에 참여해 물품도 구입하고 불우이웃들에게도 나신 상공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 만큼 모든 모두가 전통시장 살리기에 관심을 갖고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 '홍삼농축액' 원산지 가려낸다

## 4종의 첨단 분석장비 활용... 소비자·생산자 보호

최근 중국산 가짜 홍삼제품이 시중에 유통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홍삼농축액의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술로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중국에서 수입된 인삼농축액은 한해 평균 47.5톤에 이르고 있으며, 수입 원료를 부담한 방법으로 국산 홍삼제품으로 둔갑시키는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원천기술의 개발과 실용화는 매우 중요하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정부3.0 가치 실현의 하나로 위조 홍삼농축액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2014년에 개발해

현재 활용 중에 있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DNA 마커를 개발해 고려인삼과 미국산 등 종의 기원이 다른 홍삼농축액을 판별할 수 있다.

홍삼농축액을 만드는 과정에서 DNA가 많이 손상되기에 손상이 덜한 미토콘드리아의 일부분을 증폭할 수 있는 DNA 마커 개발이 핵심 기술이다. DNA 분석은 5시간~6시간 정도 걸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동일한 종 이 기술은 한국과 중국의 토양, 기

후, 재배 및 가공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했다.

근적외선분광분석기와 전자코를 이용한 원산지 판별 정확도는 100%로 나타났다. 이러한 첨단 분석기기를 이용한 판별은 별도의 전처리 과정 없이 홍삼농축액 원액을 사용해 약 1시간 안에 분석결과가 나온다.

홍삼농축액의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 인삼과(☎043-871-5613)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검정과(☎054-429-7861)로 문의하면 된다.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개발한 판별기술이 홍삼제품의 원산지 속임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현장단속 기술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중진공 전북본부, 오세아니아 무역사절단 참가기업 모집

### 10개 기업 내외 파견 호주·뉴질랜드 방문

전북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는 내내 수출 중소기업의 오세아니아 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일까지 오세아니아 무역사절단 파견기업 모집한다.

이번 무역사절단 참가대상은 도내 소재 수출중소기업으로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7박8일 일정으로 멜버른(호주), 오클랜드(뉴질랜드)를 방문해 현지 시장조사 및 바이어와의 미팅을 통한 시장개척 기회를 갖는다.

파견규모는 10개 기업 내외이며, 참가기업은 현지 코트라 무역관의 사전 시장성 검토 등을 거쳐 현지진출 유망기업을 선정하여 파견할 계획이다.

중진공 김형수 본부장은 "이번 오세아니아 무역사절단은 오클랜드 지역에서 단체상담회와 별도로 현지 유통망과의 입점상담회를 추가 지원하는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만큼 생활소비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전북도 수출지원관리시스템(<http://jtrade.jeonbuk.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문의는 전북중기청 수출지원센터 중진공 현장지원단(063-210-6466)으로 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기사제보 288-9700

## 전북은행, '희망나눔 신년콘서트' 성료

전북은행은 지난 21일 JTV전주방송과 함께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관에서 전북도민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전북은행 희망나눔 신년콘서트, Musical with Jazz & Classic'을 개최했다.

이번 신년콘서트는 정유년 새해를 맞이해 전북도민이 새롭게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을 성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예술과 문화를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개최했다.

이날 뮤지컬배우 최정원, 소프라노 김순영, 카운터 테너 루이스 초이, 테너 이정원, 색소포니스트 아리스 김, 판소리 송봉금, 뮌호스 챔버 심어즈, 바이올리니스트 이은서, 유에스터,

JK재즈밴드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뮤지컬 및 오페라 주역들이 화려한 재즈연주를 기반으로 한 수준 높은 클래식 무대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소외계층 이웃을 돕기 위해 행사장에 마련된 희망나눔 기부행사에 많은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사랑을 나누고 희망찬 한해를 시작하고자 마련된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약속하고 행복을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전북은행은 변함없는 도민사랑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함은 물론 소외 이웃들을 위한 나눔 실천에도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 완산구청 방문

### 온누리상품권 전달

한국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는 설 명절을 맞아 23일 완산구청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 150만원을 전달했다.

이화균 지사장은 "우리민족 고유 명

절인 설날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소외된 이웃에게 보내는 삶의 희망을 주고자 하는 공사의 사회공헌철학에 맞게 항상 주변의 이웃들을 보살피는 자세를 가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농협, 설 연휴 금융거래 일시 중단

설 연휴 기간인 27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농·축협과 NH농협은행 계좌를 이용한 모든 금융거래가 일시 중단된다.

이번 금융거래 일시 중단은 고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축협과 농협은행의 전산시스템을 각각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일시중단 기간에는 모든 금융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 등 계좌이체 및 조회, 자동화기기(CD/ATM) 입·출금·계좌이체 및 조회, 타 금융기관을 이용한 농협계좌 입·출금·계좌이체와 조회 업무가 중단된다.

또한, 체크카드는 설 연휴 첫날인 27일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과 현금카드는 연휴 기간 동안 사용이 안 된다.

신용카드 이용과 하나로마트, a마켓, 주유소 등 전국농협 유통·경제사업장 이용은 가능하다.

통장 또는 현금카드의 분실신고 등 사고신고 접수는 고객센터(1588-2100, 1544-2100)에서 가능하다. 단, 28일 16시부터 29일 02시까지 약 10시간 동안 온라인 결제 및 NH농협카드(채움) 모바일 간편결제(올원페이) 등 일부 거래가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인재용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http://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mailto:jjvs@hanmail.net)